大選 레이스 352일… 누가 마지막 웃을까

2007 대선 주요 일정

1월
- 대선주자 캠프 본격 가동

2월
- <14일>
  -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새 지도부 구성 및 통합신당 수임기구 설치 여부 결정)
  - 한나라당 경선 관리위원회 구성·경선방식 등 결정
  - 민주당 전당대회
- <28일>
  - 대선 인구 기준일 (이날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950원으로 계산된 금액내에서 각 후보가 쓸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 등 산정)

3월
- 고건 전 총리 신당 또는 통합신당 출범가능성

4월
- <23일>(D-240)
  -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개소, 현수막 설치, 명함배포 가능)
  -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 4.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경기 화성, 대전 서구을, 신안, 무안 등)

5월

6월
- <22일>(D-180)
  - 한나라당 후보 선출 시한 (대선 180일 전까지라는 규정에 따라 6월 22일)
  - 경선 등록시 탈당해도 선거출마 불가

7월

8월
- 여권 통합신당 후보 선출 가능성
- <21일>
  - 후보자 대담·토론 보도 가능

9월
- 본격 선거전 돌입
- <20일>
  -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 금지

10월
- <20일> 후보자 공직 사퇴 시한

11월

- <21~25일> 선거인 명부 작성
- <25~26일>
  - 후보자 등록(당내 경선 탈락자는 등록 불가, 후보자의 병역·재산·전과·세금체납등 공개)
  - 선거운동기간 시작(선거공보 발송)

12월
- <13~14일> 부재자 투표

- <19일> 대통령선거 투표

대선주자들 2007년 대망

17대 대선이 펼쳐지는 2007년을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대망'의 결실을 보는 것이다. 길고 긴 대장정의 출발점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 차있다. 희망과 실망, 도전과 좌절 그리고 성취의 한해를 걸어갈 대선 주자들의 대망과 전략 등을 살펴본다.

원탁회의 출범땐 지지율 반등

고건 전 총리는 지난해 4~5월까지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고건 신드롬'을 만들어 냈으나 최근 3위권으로 처져 있다. 범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여전히 호남권에서 40~5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커서, 호남 편중 비율이 심해지고 있다. 고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 "고 전 총리의 강점과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되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를 위해 올 초에는 민생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치적으로 덜 오염됐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고장난 정치의 구조조정'도 강조할 생각이다. 또 통합 신당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년 봄안에 여당 내 중도세력과 민주당 내 친(親)고건파 등 10~1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신당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지지율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말 노 대통령의 '(고 총리) 기용실패' 발언을 계기로 참여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 성공해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호남권 지지층 복원에 주력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여당 압승 직후 실시된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22.5%로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정 전 의장은 이후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대북 포용정책 논란에 휩싸였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지율 또한 동반 하락했다. 정 전 의장의 지지율 약세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2005년 초반까지 20~30%를 유지했던 정 전 의장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도 3~4%에 불과할 정도로 급락했다. 때문에 정 전 의장 캠프에서는 신년들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호남권 지지층 복원을 통해 지지율을 반등시켜보겠다는 계획이다.

'뉴딜정책' 통해 인지도 향상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2~3%였다가, 지난해 6월 여당 의장을 맡은 뒤로는 오히려 1%대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공통된 현상이다. 김 의장은 지역적으로나, 특정 연령층에서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언론의 노출 빈도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도 지지율 상승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대선 주자들의 인지도가 대부분 90% 이상이지만, 김 의장은 80%가량이다. 이렇다 보니, 대선주자로서 '김근태의 이미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김 의장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분간 당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뒤 통합신당 가시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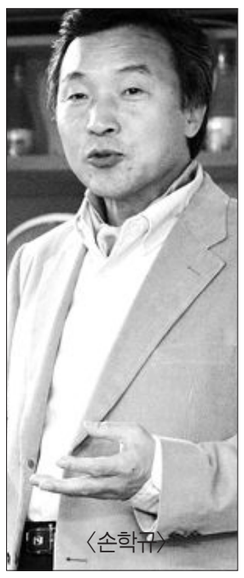
〈고 건〉

〈이명박〉

〈정동영〉

〈박근혜〉

〈김근태〉


〈손학규〉

'청계천 효과' 톡톡… 선두 고수 총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지지율이 두 차례 급등했다. 2005년 상반기까지 1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그해 10월 청계천 개통을 전후해 20%대로 뛰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10월 초 추석 연휴와 북한 핵실험 직후 30%대로 치솟아, 확실하게 선두로 올라서 2위와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청계천 개발로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 이미지가 심어진 때문이다. 호남에서도 두 자릿수인 15~17%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 전 시장은 '실천 능력'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초반 레이스의 선두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캐치프레이즈로는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선진 경제, 튼튼한 안보, 행복한 나라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대선캠프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전략과 다를 것이 없다"며 "부동산·교육·취업 정책 등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리더십 강화로 여성 약점 극복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은 기복이 많지 않다. 지난 2년간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서울시장과 고건 전 총리가 10%에서 30%대 중반까지 변동이 심했던 것과 대조된다.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돼 있는 것이다. 또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온 충청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박 전 대표 측은 캐치프레이즈에 '리더십'메시지를 담을 생각이다. 여성으로서 약점을 극복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재도약의 리더십' '통합·화합의 리더십'등을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는 의정활동에 치중하면서 외부 초청에 응하는 수준으로 활동했지만 새해 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확대된 비서실' 개념의 캠프를 본격적인 경선 대비 체제로 전환, 이 전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 극복에 나서기로 했다.

'민심 투어' 지지율 상승…'바람' 기대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난해 6월 지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지율이 줄곧 1% 대였다. 그러다가 '100일 민심대장정'을 거치면서 5% 안팎으로 급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정체 상태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성향이 손 전 지사와 맞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중소기업 CEO,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1위를 차지했다. '바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것이다.

때문에 손 전 지사 측은 여당 후보가 가시화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면 지지율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손 전 지사는 또'국가 체질을 개선해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목할만한 후보군들=이들 유력한 대선 후보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의 경우 원희룡·고진화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여권 후보로는 최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낮은 인지도 탓에 대중들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계개편과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주목을 끌면서 유력 주자군에 합세할 가능성도 있다.